

동해지방해양수산청, 추석연휴에도 사고예방은 무휴 -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에서는 가을 행락철,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‘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’을 수립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다가오는 추석연휴와 개천절, 한글날을 낀 연휴에 귀향·귀성 및 국·내외 관광 등으로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혹시 모를 해양사고에 대비해 각종 선박 및 항만시설 등을 사전에 집중점검할 계획이다. 특히,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동해와 러시아, 일본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‘이스턴 드림호’에서 선박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의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해상 종사자 및 일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구명동의 착용법, 선박 내에서의 소화기 사용요령 등을 교육·홍보하는 해양안전 캠페인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.

동해해수청 원해사안전과 김왕식 과장은 “가을철은 추석 등 연휴가 많고 행락객들의 바다 이용이 잦은 만큼 국민의 안전과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안전행정을 펼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왕식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김형석 (033-520-6152)